

정책 공약 실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밑거름

자치CEO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6연속 최우수 등급, 4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다.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광주 남구는 6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기초단체의 정책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해 개최되는 경진대회에서는 내리 4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0년에는 노점상과 주민 간 소통·상생의 가치를 실현한 토요장터 사업으로, 2021년에는 취약계층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7979 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2023년 주민과 함께 일군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올해에는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4선 정책으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가진 비전과 가치, 정치적 목표를 구체화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선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약의 이행절차 및 기한,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유권자는 이렇게 수립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및 대조해 자신의 지향과 맞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고, 공약 이행을 등을 감안해 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난 2006

년 5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계기로 발족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활동을 효시로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유권자는 선출직 공무원의 정책과 공약 실천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는 해당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물론 지속적인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이 짙고 구체적 실행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공약의 남발이나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다소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특히 지방 선거가 차츰 지역 밀착형 정책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도 매니페스토 운동의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공약 이행은 선출직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민선 7기 출범 이래, 광주 남구가 광주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차례도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놓치지 않았던 것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얻고자 최선을 다한 까닭일 것이다. 아울러 지난 7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것도 주민들의 필요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했던 주민 맞춤 정책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준 남구 공직자들과 응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광주 남구는 영 시니어와 고령 어르신, 장수 가정, 세대 통합 및 공동체 회복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목적에 맞춰 실버세대를 위해 설계한 정책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

다. 건강놀이터 조성 차원에서 지난 2022년 18홀로 개장됐던 승촌파크골프장을 올해 36홀로 확장했고, 기존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새롭게 꾸며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비로 어르신들의 놀이용품 공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다. 아울러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110세에 이르렀을 때 천세 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으뜸호 남구 TV 노래자랑을 개최해 실버세대와 그 가족을 포함한 공동체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실버세대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장수가 자랑스럽고 노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빛내기 위한 광주 남구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올해 경남도 김해시에서 이틀간 치러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의 열기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정책사업 353개 가운데 186개 사업이 선정돼 현장발표 시간을 가졌으며, 발표자 이외에 해당 정책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집결해 발표와 시상현장은 어느 스포츠 행사 못지않은 분위기를 이뤘다. 수상여부를 막론하고 이 행사를 통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각각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타 기초자치단체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상호학습의 장이 됐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지자체 간 유권자와 주민을 위한 정책경쟁을 펼쳐 나감으로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한국의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준수 절실하다

기고



고한용
광주 서부경찰
교통안전계장

최근 광주에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신창동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시

비스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남구 봉선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두 명이 통근버스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명이다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사고당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시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수칙 미준

수 사례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 이용자들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 정원 준수, 음주 운전 금지 등은 단순한 규정 아닌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들이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경찰과 지자체는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 역시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모두의 노력이 모일 때 비로소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자.



전일광장 박안수 경제학박사·남광주농협 사외이사

스포츠가 주는 환희와 감동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 다 함께’라는 올림픽의 모토(정신)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서른 세 번째를 맞는 하계올림픽이 한창이다. 시끄러운 지구촌에서 맛보는 그야말로 행복한 축제다. 파리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고 올해 또 다시 올림픽을 열고 있다.

몇 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총감독을 맡았던 송승환 감독은 올림픽의 개최식과 폐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은 개최식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고 했다. 특히 개최식 마지막 성화주자에 대한 상징성과 점화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지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했고, 기상천외한 ‘드론점화’를 시도해 인류에 큰 감동을 안겼다.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있었지만 파리로 수질논란의 중심에 섰던 파리의 센강에서 배를 타고 입장하는 장면으로 친환경 올림픽의 의지를 보여줬다. 최종 성화주자와 성화대도 메인스타디움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칼 루이스, 세리나 윌리엄스, 코마치치 등 세계적인 선수에 이어 육상의 마리호세 페레과 유도의 데디 르네르가 공동으로 열기구에 올라 성화대에 점화를 했다. 희귀병인 전신근육강직인간 증후군을 앓고 있는 캐나다 출신 가수 셀린디옹의 ‘푸른 하늘이 무너질 수 있어요 땅도 무너질지 몰라요 당신이 날 사랑하든 상관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라는 상송 ‘사랑의 찬가’도 에펠탑 2층 중앙 특설공연장을 넘어 세계인의 심금을 촉촉하게 울렸다. 에펠이라는 건축가가 프랑크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지은 에펠탑, 18000여 개의 건축용 철재를 이어 만든 이 걸작과 불멸의 가수 셀린디옹의 접목은 평창의 드론 점화만큼 기상천외하고 아름다운 조합이었다.

몇 해 전 유아원에 다니던 손자가 메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지 할아버지는 무슨 메달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이면 대부분 메달이 없었어. 다행히 지역 신문에 주최한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완주메달이 있어 궁여지책으로 보여줬는데 손자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다. 당초 우리는 이번 파리올림픽에 금메달 5개를 목표를 계획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은 아름답고 강렬했다. 전 종목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양궁 대표단의 원칙과 공정한 국가대표선수 선발, 현지 여건에 맞게 피나는 연습도 아름

다운 감동이였다.

일제강점기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생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 남승룡 선생이 동메달을 딴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올림픽 역사는 1972년 몬트리올에서 레슬링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로 이어졌고 이번 파리에서는 대구체고 안효진 선수가 사격에서 100번째 최연소라는 영광의 금메달을 따냈다. 역대 최다 금메달 기록 경신도 눈 앞에 두고 있다. 8일 기준, 대회 폐막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나흘. 태권도의 박태준이 이날 금메달을 따내면서 태극전사들은 이번 대회에서 12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은메달과 동메달까지 합치면 역대 올림픽 중 두 번째로 많은 메달을 땀다. 다이빙과 탁구, 태권도, 근대5종, 골프 등의 경기도 남아있다.

그렇다고 금메달에 연연할 일도 아니다. 심리적 조여가 있는 작가 정재영은 ‘행복의 기술’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여받는 선수들의 표정을 연구한 결과에 대한 글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가장 활짝 웃으며 높은 곳에서 행복해 하는 선수는 금메달리스트였다. 그건 자명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행복한 표정을 지은 선수는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동메달리스트였다고 한다. 결승에서 패한 은메달리스트는 패배에 대한 아쉬움으로 시상식에 오르지만 동메달리스트는 자칫 4위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에서 3위를 차지한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해 웃음과 행복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갈아입으면 매일 환상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저자의 설명에 공감한다.

이제 올림픽도 종반을 향해가고 있다. 남자 높이뛰기나 골프, 복싱 등 남은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줄 투혼과 감동도 계속될 것이다. 폐회식에 다음 개최국인 미국 배우 톰 크루즈가 출연해 어떤 미션임파서블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기대도 크다. 지루한 장마와 이어지는 무더위, 그리고 지역 건설사들의 잇단 법정관리로 지역경제의 불황이 계속되고 정치현실 또한 기대와 달리 조금은 답답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지금, 호남을 연구한 KIA타이거즈의 프로야구와 광주FC 축구와 함께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 다 함께’를 기치로 투혼과 감동을 안겨주는 파리의 올림픽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동과 환희를 선물한다는 점에서 나에게도 큰 행복이다.

보약, 홍삼은

북교당한약방

40년 오직 한 길!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